

제 25차 전국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기록자	확인자	의장	
		홍민지 임한결		오태양	
일 시	2018년 11월 25일(일요일) 10시-18시		장 소	대전회관	
출결상황	분 류	재 적 인 원	출 석 자 명 단		
	성원인원	22명	오태양, 강주희, 홍민지, 우인철, 오은정 이중희, 안재호, 황윤영, 김모은, 문희현 이주희, 정민권, 김기성, 정기영, 이재곤 한건우, 길미보, 임한결 [참관] 유애림, 김순태, 조기원, 최연석, 손상우		
	참 석 자	18명			
	불 참 자	4명	이경민, 박세미, 류희정, 이주현		
안건 상정 및 심의			Secret	Open	Local
[의결안건 1] 4기 폴리스쿨 사업안 ■안건제안 4기 폴리스쿨 커리큘럼 및 미래정치캠프 프로그램 의견수렴					
1. 개설목적 - 우리미래의 비전 (젊은 정당, 열린 정당, 미래 정당) 중 열린 정당에 어울리는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갈등(벽)을 넘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해본다. - 인간으로써의 권리가 무엇인지 학습하고, 성별이나 소수자, 장애 등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해본다.					
2. 대상 -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활동가) : 필수 - 신규당직자(조건 : 권리당원, 3개월 이상 주 1회 이상 정기 자원활동)					
3. 진행일정 - 진행자 교육 : 12월 9일(일) 정책교육팀장 및 폴리스쿨 담당자 - 4기 폴리스쿨 : 2018년 12월 17일~2019년 1월 20일 (기간 중 총 4강, 시도당별 계획서 제출) - 미래정치캠프 : 2019년 1월 12일(토) ~ 13일(일) 1박 2일 * 미래정치캠프까지 포함하여 총 5강을 수료하면 수료증 발급					
4. 세부프로그램 - 영상, 책자제공, 토론으로 구성 : 총 4강(인권 개념 / 젠더 감수성 / 다문화 / 장애) - 미래정치캠프 : 선관위 강의, 인권강의, 2018년 정리, 2019년 우리미래 비전, 토론					

■질의 및 의견

- 주말에 진행해도 되는지? > 가능함
- 따로 세미나로 진행해도 되는지? > 가능하지만 수료기준으로 포함 할 수는 없음.
- 교육담당자와 교육정책팀장이 달라도 되는지? > 되도록 같으면 좋지만, 가능함.
- 진행자 교육 일정과 장소는? > 12월 9일 일요일이고, 장소는 아직 확정 못했음.
- 폴리스쿨 영상으로 혼자 보는 것도 가능한지? > 고려해보겠음.
-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짰는지?
 - ▶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인권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첫 번째 강의는 인권의 토대를 알 수 있도록 짰음. 그리고 인권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차이를 통한 차별은 인권의 문제) 그 중에 3가지 이슈를 뽑아서 2-4강을 구성하였음. (여성, 다문화, 장애)
- 성소수자 이슈도 들어가면 어떨지? > 논의는 하였으나 기본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1~3기 폴리스쿨 보완계획이 있는지?
 - ▶ 있음. 2강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1강은 많이 바꿀 예정인데 2018년 안에는 어려움.
- 실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시민단체 방문 등). 직장에서의 인권, 혐오에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음. > 고려해보겠음.

■5강 모두 들어야 수료되는 것에 대한 논의

- 5강 모두 들어야 되는 것 찬성함. 활동가의 동력에서 폴리스쿨 듣느냐 안듣느냐의 차이가 큼.
- 미래정치캠프를 보강하되 고난이도의 레포트 제출하면 좋겠음. 미래정치캠프를 최대한 참석하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음.
- 당직자 기준이 되는만큼 후에 다시 변경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수료기준을 잡아야함. 1강 정도 빠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 것이 현실적임.
- 미래정치캠프 매우 중요함. 우리미래 활동에 대한 유대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캠프 때 놀러간다는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해보면 더 많은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 듯함.
- 당직자 기준으로 연1회 이상 미래정치캠프 필참으로 하고, 당직자의 경우 미래정치캠프 불참 사유서를 내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수료기준 100% 또는 75%

- ▶ 75% 다수 (5강중 4강 이상 들으면 수료. 단, 미래정치캠프는 보강을 만들지 않음.)

-보강기준은?

- ▶ 폴리스쿨 끝난 후 1개월 안에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함.

-레포트를 내는 것을 열어둘지 닫을지?

- ▶ 레포트는 이번 폴리스쿨부터 없앤다. 다수.

□수정안으로 의결

-찬성(16명)/반대(0명)/기권(2명)

[심의안건 1] 당원/후원인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안

■안건제안

1. 당비 배분율

- 1) 현재 중앙당:시도당=6:4(*서울/경기는 7:3)
- 2) 1500명 달성 시 5.5:4.5 배분 제안

2. 재정운영 가이드

1) 후원회

- 정기 후원금은 당비 배분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 후원은 후원자가 지정한 시도당에 100% 지급

2) 교통비 지원

- 전국운영위 참여의 경우 우등버스 기준(시도당 당비 사용)
- 기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시도당 당사 운영

4) 예정산 사용

3. 연말 십시일반 후원모금

1) 세액공제 혜택 적극 홍보하여 후원금 모금

2) 시도당은 권리당원 배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후원회원 가입 제안

4. 시도당 재정자립

1) 최소 월 30~60만원 필요

2) 사무실/각종교통비/사업비(강의운영 등)

■질의 및 의견

-서울/경기는 현재 7:3 비율로 배분되고 있다. 서울/경기는 목표 달성 시 어떻게 조정될지?

▶ 서울/경기의 경우는 6.5:3.5로 조정 제안

▶ 현재 목표 달성 시 서울/경기는 다른 지역보다 배분율이 낮아 더 많은 당원을 모아도 더 적은 배분금을 받게 되 역전현상이 일어남.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서울/경기는 중앙당 사업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안도 필요.(형평성)

▶ 경기의 경우 목표인원이 매우 적어 이 부분이 역전현상에 영향을 미침. 당원수가 여전히 초반 중앙당 기여율이 높은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의 배분금 조정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필요함. 이에 대한 상세 계획이 필요.

-시도당 배분금 조정 시점이 각 시도당 목표 달성이 기준인지, 전체 1500명 권리당원 달성이 기준인지.

▶ 전체 1500명 권리당원 달성 기준으로 조정함.

-대구시당의 경우 시도당 재정독립을 기준으로 154명을 잡아서 실질적인 목표치는 조정 필요.

-부산시당의 경우 교통비가 타 시도당보다 많이 들어 사업비는 거의 없는 상태. 1500명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전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 지원은 어려우나 서울에서 할 경우 대전 이남 지역은 중앙에서 부담.

-1500명에 대한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창당 초기 당원의 20~30%정도만 증감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1300명정도로 증가했을 때도 배분율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 해당 목표치는 각 시도당에서 자발적으로 잡은 수치.

-후원회 홈페이지에 정기후원은 계좌가 나와있으나 일시후원은 통장결재 자체가 사라짐.

▶ 계좌이체에 대한 코멘트를 시스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함.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자의 정보가 없어서 추후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 시트에 입력하면 제일 좋으나 어려우면 연락처라도 받아놓아야 함.

-재정보고가 충분하지 않음.

▶ 상임위 단위까지는 투명한 공유가 필요. 전국운영위에서 중앙당과 시도당 정기보고 필요.

-선관위에서는 카드 포인트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다.

▶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에 비해 실수가 많이 소요되어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심의안건 2] 창당/권리당원 모집 사업안

■안건제안

1. 논의사항

- 1) 시도당별 권리당원 현실적 목표 재설정
- 2) 12월 중 중앙 담당자와 함께하는 권리당원 모집의 시간 제안
- 3) 권리당원 모집 특공대 제안

2. 창당 사업

- 1) 법적 창당 12월 중으로 모집 달성(이후 대표 선출하여 공식 등록)
- 2)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연습과 내부 단합의 효과가 크다.

3. 권리당원 모집

- 1) 현황을 보면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울산과 충북이 성과가 보임. 울산의 경우는 김민재님 혼자 17명을 모집함.

4. 목표설정과 메시지

- 1) 현실적인 목표설정
- 2)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당비를 계획 세워보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옴.

■질의 및 의견

-시도당 상임위에서 '울산시당 김민재님' 사례 영상 시청 가능하게 공유할 예정.

-권리당원 목표 : 대전(60), 충북(70), 인천(60), 경남(미정), 부산(미정), 울산(미정), 광주(60), 경북(미정), 경기(미정), 서울(미정), 대구(90), 전북(미정)

[심의안건 3] 11월 뿌리모임 운영안

■안건제안

1. 하반기 뿌리운영기조에 대한 평가
2. 중앙당 뿌리국장 - 시도당 대표 소통 일원화
3. 12월 뿌리워크숍 '2018 뿌리갈무리' ; 12/16(일) 대전 제안

■질의 및 의견

-무리 없음 ; 충북, 인천, 경북, 경기, 전북, 대전.

-경남 ; 상임위와 뿌리가 같이 한다고 할 때 뿌리에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려움 있음.

-부산 ; 상임위가 함께 기획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 아직 내리기 이르다. 소통일원화는 대표에게 실무과부하 되는 측면이 있어서 뿌리팀장과 직접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음. 시도당 뿌리대표자회의에서 중앙 상임위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취합해서 전국운영위에 대표가 참여함.

-울산 ; 뿌리모임 운영 잘 안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음.

-광주 ; 소통일원화는 대표 과부하라서 뿌리팀장과 직접 소통했으면 좋겠음.

-서울 ; 4지역에서 월 1회 열리고 있고, 뿌리별로 알아서 기획하고 있음. 소통일원화는 실무적인 것을 대표와 소통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음.

-대구 ; 올해 하반기에 2번정도 열었음. 소통일원화는 소통시간이 오래걸려서 비효율적임. 중요한 상황만 대표와 소통되면 좋겠음.

▶ 방침은 중요한 사항을 대표와 소통하고, 실무적인 것은 담당자와 소통하자는 것임.

-(서울)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소속원이 어느 행사에 참여하는지는 대표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대표가 부담스러우면 팀장이 하는 것도 방법.

-(대구) 동의하지만 뿌리워크숍 날짜 잡는 것 정도는 실무로 보면 좋겠음.

-부산, 대구, 서울은 실무적으로 라인을 정리할 예정.

[심의안건 4] 12월 선거제도 개혁 사업안

■안건제안

1. 서명운동

- 게릴라식 서명운동 : 서명판과 팜플릿을 기본으로 하는 거리 서명운동 (ex 부산, 대전)
- 베이스캠프식 서명운동 : 테이블로 진지를 구축하고 각종 도구를 갖춘 거리 서명운동
- 요청 : 게릴라식의 서명운동 모임(회의, 뿌리모임) 때 마다 진행, 서명운동 인증샷 찍기

2. 여의도 불꽃집회

- 제목 : "여의도 불꽃집회" 부제는 "선거제도 개혁"
- 일시 : 12/15(토) 오후 3시-5시 (각 단위는 인근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전행사)
- 행사기조 : 여의도로 상징되는 국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전국민적 열망을 모으는 한마당. 격렬하고 뜨거운 결의를 담되, 전반적인 행사는 완성도, 짜임새있는 행사. '아주 정치적인 밤'보다 더 규모 있으면서 열정적인 행사
- 본마당 행사기획 : 최소 경찰추산 3천명, 주최측 추산 5천명 이상의 대중 집회. 촛불집회에선 가장 대중적이고 인지도 있는 공연팀을 반드시 최소 1팀은 섭외(공연팀은 총 3팀) ex 이은미, 전인권 등.
- 예산규모 : 3천3백-3천8백만원
- 요청 : 전국에서 모여, 행사참여 (우리미래에서 사전행사 기획 예정)

■질의 및 의견

-여의도 불꽃집회 때 우리미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 100명으로 생각하고 있음.

▶ 중앙/수도권 총결집하고 시도당은 희망버스 타고 오시면 되고, 시도당 마다 깃발은 모두 왔으면 좋겠음

-우리미래사전기획행사는 몇 시에 하는지?

▶ 2시부터 3시까지 진행. (본행사는 3시부터)

▶ 서울시당인 필요하면 준비 같이 할 수 있음.

[심의안건 5] 평화이슈와 비전토론

■안건제안 ; 우리미래 평화·통일정책 전망과 과제

1. 남북관계 조망

- 2017년 북미긴장관계의 고조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대두될 정도로 남북관계 악화, 흉준표를 필두로한 수구보수진영은 '위장평화쇼' '전술핵' 등을 거론하며 냉전적 메시지로

일관

- 결국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과 보수보수세력의 궤멸 초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의 연장이기도 하거니와 '전쟁위기설'에 대한 중장년세대의 공포감, 그리고 '안전과 평화'에 대한 중장년세대의 여론이 반영된 것.
- 결국 보수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전쟁반대/평화체결'의 기조는 수용해야 '극우냉전' 세력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평창올림픽에 이어 3차례 남북정상회담, 연이은 북미회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평화외교는 한국인으로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 (지지여론)
- 향후 남북관계는 정부와 여당 주도성이 강하게 작용할 듯. 북한의 요구에 따라 한국 대기업의 적극적인 결합(경제특구방식),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및 '인도주의' 분야의 교류 활발히 전개될 것임.
- 현재 관건은 '종전선언' '유엔대북제재 완화 및 해지' '평화협정체결'의 이슈 해결이 필요하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2차북미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줄 듯.
- 2019년의 의미성 : '임시정부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은 적극적인 '한반도평화' 메시지와 빅이벤트를 공세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확실해 보임.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숙원을 해결하고, 적어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돌이킬 수 없는 본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는 측면.
- 3가지 과제 : '북미간 신뢰회복과 실질적 조치' '한국사회 경제문제 해법 마련' '정치세력간 협치방안'
-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될수록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른 비판/반대논리(퍼주기논란)가 강하게 제기될 것.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식 모델보다는 '대기업의 대자본이 투입되는 새로운 경제특구' 방식으로 활로를 찾을 가능성 높아보임. 그래야 한국사회 비판여론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북한의 요구도 수용할 수도.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대기업 특혜사비와 한국경제생태계의 불공정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과 협력을 얼마나 획득할지가 관건.
- 또 하나의 쟁점은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강한여당'과 '보혁협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다분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지지율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강한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높아보임.

2. 우리미래의 대응 방향

(1) 우리미래가 통일/평화 메시지를 내야하는 이유

첫째, 평화/통일시대의 당사자(미래주체)로서의 주체의식(역사주체로서의 시대 의식)

> 통일시대를 이끌 정치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성

둘째, 청년 미시정책/단발이슈만으로는 정당차별성과 확장성의 한계

셋째, 우리미래 지지층 확대를 위해서는 '통일담론'이 필수적임.

(2) 방향성

- ①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맞아 '평화시대' '통일시대' 우리미래 담론만들기
> 2기체제의 주요 메시지가 되어야 함.
- ② 당직자/활동가 내부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 2기 미래정치아카데미 / 5기 폴리스쿨과의 연계성 고려
- ③ 실천사업에 대한 연구와 기획이 필요함.
> '평화(통일)'와 '청년' '일상'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

> 중앙당 차원의 기획사업 구상

3.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

① '통일' 언어가 갖는 진부성, 이미지 한계성

> 평화나 VS 통일이냐 에 대한 전략적 선택 / 독일통일이 '유럽공동체(EU)'의 모델 :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② '청년'과 '통일'의 부조화에 대해

> 메시지와 정책차원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찾아야 함. (세련되게)

> '희소성'이 오히려 '우리미래의 강점'이 될 수도 있음. ('팜프라' '체게바라' 사례)

③ '정부주도성'의 문제

④ '일상'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담론부조화

⑤ 총선전략에서의 메시지 관련

■질의 및 의견

-비전특위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문위원과 결합은?

▶ 비대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기획위원장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고, 정책국장 부분참여 하고 있음.

▶ 자문위원결합 계획은 있으나 실행이 안되고 있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통일 활동이 없다는 것이 논의되어야 할 듯함

▶ 전통적 통일운동 말고 새로운 접근의 활동을 연구기획해 볼 예정이고 활동수위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통일 관련해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 대기업 위주 통일과는 반대 입장을 내야 할 것 같음.

-통일기조 동의하지만, 통일/평화는 청년에게 와닿는 이슈는 아니어서 경제적 측면이 강화된 정책을 내야할 것.

-통일이 청년들에게 헬조선의 확장으로 느껴질 수 있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통일로 가야한다.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통일/청년 연결고리는 만들기 어려우므로 부담을 가지기 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 좋을 듯. 청년이슈파이팅을 계속 하면서 통일 이야기를 해야할 것.

-만약 2기에 통일기조로 간다고 하면 청년사업보다는 통일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것. 청년과 통일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

-우리만큼 통일에 대해 내용이 있고, 내재화 되어있는 곳 드물다. 지금이 통일기조로 가야하는 적기라고 생각함.

-인기가 없을 것 같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소임이라면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함. 세련되게 한다면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 우리미래에 함의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미래모습은 통일된 한반도. 헬조선의 복사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만드는 것. 새로운 세대의 문제의식이 투영되어야 하는 것. 적극적인 의미로 통일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필요함. 분단체제가 지속되는한 한국에서 양당체제를 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한국만 유일하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진보보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음. 유럽의 청년들이

EU공동체를 보면서 비전을 키웠듯이 그러한 전망이 우리도 필요함. 내년 100주년이 굉장한 의미를 가짐. 그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미래에 중요 할 것.

다음회의일정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10시-18시)	회의비(지출시)	
--------	--------------------------------	----------	--